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Liner companies swamp Hyundai Mipo for feeder boxships

현대미포조선은 피더컨테이너선에 대한 인콰이어리가 폭증하고 있지만 수주잔고는 2023년 말까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은 신규 수주를 받아 봐야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태로 인콰이어리 자체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etronas selects South Korean owner and yard for LNG newbuildings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업체 Petronas가 현대엘엔지해운을 선주로 선택하고 현대중공업에 LNG선을 3척 가량 발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Petronas는 LNG Canada 프로젝트의 운송물량을 커버하기 위해 LNG선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3척 외에 비슷한 수의 옵션분도 계약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Unacceptable' not to choose LNG for newbuildings, Shell says

선박연료로서 LNG의 가치가 다수의 시장 Player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보도됨. AET, International Seaways, NYK Line, Shell, Wartsila 등 조선 전후방산업내 속한 Global 업체들은 오늘날 신조선 발주시 최고의 선택지는 LNG라고 동의함. (TradeWinds)

IEA, Opec paint brighter tanker prospects from summer

탱커 상황이 여름전후로 Turn-around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COVID-19 접종이 진행되면서 Opec과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보도됨. IEA에 따르면 2021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9,670만 bpd(barrels per day)로 23만bpd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acific Basin Shipping's bulkers earned best rates in 10 years in early 2021

홍콩의 벌크선사 Pacific Basin Shipping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동안의 벌크운임 수준이 과거 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고 보도됨. 2021년 1분기동안 Handysize운임은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했으며 Supramax운임은 +29% 상승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한국조선해양, 현대LNG VLGC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12일 수주했다고 발표한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인 현대엘엔지해운으로 알려짐. 86,000CBM급 이중연료추진 VLGC 2척에 대한 계약이며, 계약금액은 1.56억달러로 보도됨. 옵션분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음. 해당 선박은 국내 LPG 수입 업체인 E1과 용선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고 보도됨. (선박뉴스)